



KWC 2022 수상 와인 릴레이 프랑스 FRANCE

지난 10월호에 이어 프랑스 대표 와인 산지들과 각 지역 KWC 수상 와인에 대해 소개한다. 프랑스의 와인이 널리 알려진 만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보르도, 부르고뉴를 제외하고도 여러 지역에서 양질의 와인이 양조되고 있다. 프랑스의 보물 같은 와인 산지 4곳과 각 지역의 KWC 수상 와인을 소개한다.

글 임효진 사진 위키미디어, 각 수입사, 장영수, Unsplash



프랑스 에투알 개선문



브장송 시가지를 관류하는 두 강

JURA 쥐라

쥐라(Jura) 지방은 프랑스 국토의 동쪽, 부르고뉴 지방과 스위스 국경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의 전통, 입지, 기후 등의 영향으로 특색 있는 와인을 생산한다. 이탈리아, 스위스 등과 이웃하고 있어 와인의 양조 스타일도 자연스럽게 이 나라들과 닮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잘 익은 포도를 실내 혹은 밀짚 위에서 말려 만든드 와인인 뽕 드 빠이유이다. 이는 이탈리아의 파시토 방식(포도를 그늘에 건조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대륙성 기후로 겨울과 봄이 추우며 여름은 시원한 편이지만, 포도의 늦익기로 인해 11월까지 수확이 이어지기도 한다. 토양은 진흙과 석회질이 혼합돼 있다. 주로 5가지 포도종이 재배되며 화이트 종에 사바냥, 샤프도네가 있고 레드 종에 뽕사르, 트루쑈, 피노 누아가 있다.

▶ Domaine Philippe Vandelle

1883년에 레프탈에 자리를 잡은 반델 가문은 5대를 넘겨 오며 포도밭을 경작하는 것은 물론 발효, 숙성 등 그들 가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와인을 양조해 오고 있다. 2001년부터 독립한 필립 반델은 13ha의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다. 최소한의 이산화황 사용을 원칙으로 경작하며 상황에 따라 전혀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쥐라 지방의 토착종인 사바냥으로 뽕존이라 불리는 쥐라 지방 특유의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외에도 크레망 드 쥐라, 맥뱅 등 쥐라 지방의 전통 와인을 만든다. 수입사 안시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Domaine Philippe Vandelle Crémant du Jura Brut NV

RHONE 론

프랑스 동남부에 자리 잡은 론(Rhone) 지방은 리옹 시의 바로 남쪽에 있는 비엔느 마을에서 아비뇽에 이르는 220km의 좁은 강 유역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도 론의 최고급 와인들은 최상급 보르도와 부르고뉴 와인에 필적하는 가격과 품질을 보여왔다. 이 지방은 크게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구분한다. 같은 지방으로 묶이지만 두 지방은 생산 포도 품종과 테루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북부 론의 포도밭은 대부분 론 강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길 이 좁고 경사가 가파른 구릉지대에도 형성되어 있다. 와인 양조에는 주로 레드 종은 시라, 화이트 종은 마르산느, 루산느, 비오니에가 쓰인다. 잘 알려진 북부 론 산지로는 꼬뜨로피, 콩드리와, 생 조셉, 크로즈 에르미타주, 에르미타주, 코르나스 등이 있다.

남부 론 지방은 지중해 연안으로 비교적 완만한 산지다. 포도는 레드 종에 그르나슈, 시라, 무르베드르가 주로 쓰이며 화이트 종으로 그르나슈 블랑, 끌레레프 블랑슈, 마르산느, 루산느, 부르불랑, 비오니에 등이 쓰인다. 주요 산지로는 샤푸르 뒤 빠쁘, 지공다스, 파벨, 바케이라스 등이 있다.

▶ Maison Delas Frères

18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와이너리이다. 다양한 AOC를 가진 론 지방의 TOP 생산자 중 하나로 메인 지역인 북부 론 지방에서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이 총 14ha에 이른다. 특히 북부 론 지방의 에르미타주에 8ha의 가파른 화강암 경사 지역에 위치한 땅인 '레 베사르(Le Bessards)'를 보유하고 있다. 자체 생산한 포도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은 생산자들에게서 얻은 포도로 거의 모든 AOC 와인을 생산한다. 1981년에는 프랑스 최고의 샴페인 회사 도츠(Deutz)가 와이너리를 인수하면서 와이너리의 명성이 한층 높아졌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Domaine Des Tourettes
- GOLD** Les Launes
- SILVER** Domaine Des Grands Chemins
- SILVER** Haute-Pierre



Maison Delas Frères의 포도밭

▶ Maison Castel

메종 카스텔은 1949년 Pierre Castel과 그 형제, 자매들이 만든 유서 깊은 Castel Freres의 와인 브랜드이다. Castel Freres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을 대표하는 와인 회사 중 하나로, 세계 와인 시장에서 3번째로 큰 와인 생산 기업이다. Castel Freres는 20개의 샤프와 그랑 크뤼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2,500개의 와인 생산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협력을 중시하는 가족적인 성격을 자랑스러워하며 프랑스 및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와인 생산 전문 지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 수입사 가자무역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Series Limitees Gigondas Rouge AOC
- SILVER** Grande Reserve Cabernet Sauvignon Rouge Pays d'oc Igp
- BRONZE** Series Limitees Languedoc Pezenas Rouge AOC

▶ Grandes Serres

1977년에 설립된 그랑 세르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와인의 훌륭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남부 론 지방의 떠오르는 와이너리이다. 2009년부터 남부 론의 와인을 보다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파트리크 르섹(Patrick Lesec)의 컨설팅을 받으며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세계 와인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랑 세르는 시멘트 탱크와 프렌치 오크 배럴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좋은 밸런스를 가진 와인을 양조한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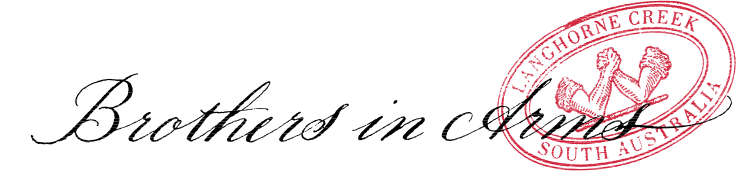
수상 와인리스트

- SILVER** Cotes Du Rhone "Les Portes Du Castelas"

SOUTH WEST FRANCE

서남부 지방

서남부(South West France) 지방은 보르도의 외곽 지역부터 남쪽과 내륙 지방에 이르는 곳이다. 행정 구역 상으로는 누벨 아키텐(Nouvelle Aquitaine)과 옥시타니(Occitanie) 두 개의 지방에 걸쳐져 있다. 알려진 AOC 지역으로는 가이악(Gaillac), 베르제락(Bergerac), 까오르(Cahors), 마디랑(Madiran) 등이 있으며 포도밭 면적은 16,000ha에 이른다. 1세기 경 로마인들이 이 지방에 들어와 포도 경작을 시작했으며 가이악과 마디랑 마을에서는 11세기 베네딕트 사원에 의해 와인 산업이 융성했다. 14세기 까오르(Cahors) 마을의 와인은 당시 아비뇽 근처 가르팡트라스(Carpentras)에 있던 교황 요한 22세가 즐겨 찾던 와인으로 전해진다.



녹진한 명품 쉬라즈의 본고장
남호주 랑혼크릭의
와이너리 브라더스 인 암즈



Formby's Run
Shiraz
폼비스 런 쉬라즈

Killibinbin Sneaky
Shiraz
스니키 쉬라즈

유와인(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195번길 30 T 070 4145 7158 www.uwine.kr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서남부의 이클레기 마을과 포도밭

▶ Plaimont

보르도 남서 지역에서 3대째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생산해오던 앙드레 두보스크 (Andre Dubosc)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 도전적인 사업 수완을 발휘하면서 와이너리의 명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 지역의 젊은 와인 생산자들과 힘을 합쳐 드라이 화이트 와인(현재는 PGI : Cotes de Gascogne)을 만들었고, 생몽(Saint Mont) 지역의 와인 생산을 부활시켰다. 또한 늦수확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페슈앙 뒤 빅-비히(Pacherenc du Vic-Bilh) 지역에 활기를 되찾아 주었다. 앙드레 두보스크와 이곳의 와인 생산자들은 생몽의 와인 셀러와 포도밭을 더 확장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Plaisance는 "Pl", Aignan의 "Ai", Saint Mont는 "Mont"을 합쳐 "플레몽"으로 이름을 지었다. 수입사 비노파라다이스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Echo Indigo Igp Côtes De Gascogne (Colombard & Sauvignon Blanc)
- SILVER** Cèpages Préservés AOC Saint Mont
- SILVER** Elia Igp Côtes De Gascogne
- SILVER** Les Frondeurs AOC Pacherenc De Vic Bilh Sec

LANGUEDOC-ROUSSILLON

랑그독 루시옹

랑그독 루시옹(Languedoc-Roussillon) 지방은 프랑스 남부에 펼쳐져 있는 넓은 산지다. 동쪽의 님(Nîmes)과 몽펠리에(Montpellier) 지역부터 지중해 연안과 스페인 국경 지역까지 이르며 론 강, 피레네 산맥과 인접하다. 전체 300,000ha가 넘는 규모로 프랑스 내에서 가장 생산 면적이 넓은 구역 중 하나이다. 와인은 뱅 드 페이(Vin de Pays)가 약 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지중해성 기후와 자갈 토양, 두터운 진흙층 등의 영향으로 와인을 생산하기에 적합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 탓에 생산 와인 가운데 80% 이상이 레드 와인이다. 수 세기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와인 생산지 임에도 과거에는 품질 보다는 생산량에 초점을 맞춘 와인을 만든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점차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른 프랑스 와인에 비해 가격대는 낮은 편인데 실험적이면서도 수준 높은 와인을 양조하는 생산자들이 등장하며 최근 20년 사이 와인의 품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까리냥, 무르베드르, 시라가 레드 와인 양조에 쓰이는 대표적인 품종. 화이트 와인은 마까브(Maccabeu), 끌레레프(Clairette)를 사용한다.

▶ Lgi Wines

알리앙 그리농(Alain Grignon)은 1999년 랑그독 와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남프랑스의 카르카손(Carcassonne)에 와이너리를 설립한다. 그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난 와인을 생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자비에 로저(Xavier Roger), 세드릭 듀퀴니(Cedric Duquenoy)가 함께 경영을 맡아 다양한 와인 생산을 시도했다. 그들의 포도밭은 랑그독 중심지에 위치하였으며 다양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수입사 동원와인플러스,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Anciens Temps Pinot Noir
- GOLD** Sold Out Merlot
- SILVER** Anciens Temps Cabernet / Syrah
- BRONZE** Anciens Temps Reserve Cabernet Sauvignon
- BRONZE** Sold Out Rose

▶ Maison Orcia

메종 오르시아는 2016년 장 필립 망쉴(Jean Philippe Manchés)에 의해 설립되었다. 론 지방 가운데 남부 론 지방의 '고프 뒤 론', '샤도 노트 뒤 빠쁘', '바게이라스' 등지의 AOC 와인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KWC에서 바게이라스 산지의 와인이 Gold를 수상하며 퀄리티를 인정받았다. 참고로 Maison Orcia의 와인은 아직 미수입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수입 파트너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 GOLD** Maison Orcia, Vacqueyras
- BRONZE** Maison Orcia, Châteauneuf Du Pape Bio

랑그독 루시옹(Languedoc-Roussillon) 지방



2022 코리아와인챌린지 골드 수상 실드 내로우 로드

바로사 벨리의 명가 실드 에스테이트
최고의 포도밭 Narrow Road 에서
오직 500케이스만 생산하는
한정수량 프리미엄 와인



▶ Domaine Singla

도멘 생그라는 1760년 루씨옹에 자리 잡아 현재까지 9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 깊은 가족 경영 와이너리다. 떼루아의 차이를 존중하는 부르고뉴 지방의 포도밭 구획법으로 포도를 생산하며, 특히 2006년부터 모든 와인을 바이오 다이내믹 농업 & 유기농 농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와인마다 개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정도로 풍부하고 우아한 풍미를 지닌 와인을 만든다. 이번 KWC에서 골드를 수상한 Arrels의 2011 빈티지는 세계 유명 평론가 로버트 파커로부터 94점을 받으며 전세계적으로 퀄리티를 인정받기도 했다. 수입사 엘비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Domaine Singla, Arrels
BRONZE Domaine Singla, El Moli

▶ Roche Mazet

로셰 마제는 1998년에 런칭된 브랜드다. 가격 부담이 적으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와인으로 인기가 많다. 2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며 프랑스 현지에서 판매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전 세계에서 5,300만 병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프랑스 와인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평단의 인정을 받고 권위 있는 와인 대회에서 여러 수상 와인을 배출하며 뛰어난 상품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수입사 레뱅드매일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Roche Mazet, Grenache
SILVER Roche Mazet, Pinot Noir

▶ Gerard Bertrand

남부 프랑스인 랑그독-루시옹에서 최고 품질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역 특유의 떼루아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혁신적인 와인 생산자이다. 양질의 포도 재배를 위한 떼루아를 찾으며 끊임없는 실험과 색, 탄닌, 아로마의 분석을 통해 최적의 수확일과 양조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 남부 프랑스의 저급한 품질의 와인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며 세계적인 와인을 탄생시켜 랑그독을 상징하는 와이너리가 되었다. 수입사 하이트진로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Gerard Bertrand, Cigalus Blanc
BRONZE Gerard Bertrand, Heritage Tautavel



Gerard Bertrand의 숙성실



랑그독 루시옹 포도밭

▶ Château de l'Ou

샤또 드 루는 1988년부터 루시옹에 정착해 유기농 와인을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는 매우 훌륭한 품질의 유기농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와이너리 이름의 '루(Ou)'는 스페인 카탈루냐어와 프랑스어를 조합해 만든 '달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발효통과 오크통에 무지개 빛깔로 색을 두른 것은 와이너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시작했는데, 지금은 와이너리의 상징이 되었다. 수입사 엘비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Infiniment de l'Ou

▶ Domaine Gayda

도멘 게이다는 2002년 영국 출신의 원예학자 팀 포드(Tim Ford)와 투자를 책임진 앤소니 레코드(Anthony Record), 와인 메이커 뱅상 샹소(Vincent Chansault)가 의기투합하여 세운 와이너리이다. 이곳의 철학은 대자연이 지닌 특징을 온전히 와인에 담는 것이다. 그들은 유기농 비료를 사용하고 지피 작물을 포도밭 사이에 키워서 포도밭 역시 인위적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 회전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2004년 완공된 최신 설비의 와이너리는 각 포도밭의 특징을 살린 개별 양조법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포도밭의 개성을 살린 와인을 양조하는데 힘쓰고 있다. 수입사 KS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Gayda Cepage Viognier
BRONZE Gayda Cepage Chardonnay



프랑스 현지 판매 1위 와인을 넘어, 이제는 전 세계 판매 1위
1초에 두 병씩 판매되는 '로셰마제'
ROCHE MAZET



(주)레뱅드매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9길 28 용진빌딩 5층 Tel. 02-3497-6888
경고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